

가축위생시험소의 발전 방향

— 존경받을 수의사가 되기 위한 전망 —

머 리 말

21세기초인 2005년 또는 2020년에는 수의사의 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대우 받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가축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수의사들의 가장 바람직한 상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20세기 초에 대한민국의 가축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수의사들이 가장 바라는 수의사상을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답은 무엇인가?

우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보자. 우리는 과연 목표를 얼마나 생각해 보았는가? 목표를 정리해 보지도 않고 문제점만 나열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1996년 수의사 등록 상황(대한수의사회 자료)은 등록 수의사 6,464명중 무직인 1,696명을 제하면 4,768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 중 가축위생시험소 근무 수의사는 600명으로 약 50개 가축위생시험소에 배치되어 있다. 비율로 보면 약 13%가 된다. 같은 업무를 전국 곳곳에서 수행하는 것이며 최일선 실험실 근무 수의사들이다. 이들이 갖는 지역적 책임, 전국의 문제점 도출, 통일 과제의 수행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600여명의 수의사가 실력을 바탕으로 활기찬 업무를 수행한다면 우리나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진다.

여기서 1996년 4월 13-14일까지 Illinois주 Wyndhom Hotel에서 “Symposium Proceedings ; Managing your Economic Future in Veterinary Medicine.”의 소개를 한번 보자.

현 미국 수의사회장인 Sherbyn W. Ostrich 박사의 개회사이다.

“우리는 왜 이 심포지움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참석자들에게 하였다. “우리의 경제적 기초에 부식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대학을 졸업한 Medical Intern은 \$ 110,000을 버는데 우리 졸업생은 평균 \$ 31,000이다. 보다 높은 지식의 연구를 위하여 1980년대에 연방정부에서 지금의 잘못이 있었다. 연구내용은 선택하지 않고 인건비만 상승시켰다. 경제적 기초에 부식이 있으므로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수의사들의 즐거움에 잘못을 가져오게 되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가장 현명하고 좋은 것에 매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예견은 학생과 새로운 졸업생들에 ‘무거운 짐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Ostrich 박사는 \$100,000 이상에 대해 토론하는 학생들로부터 온 ‘불평의 편지’를 읽었다. “내가 선배 수의사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이런 토론이 수의사들의 이해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Ostrich 박사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세계수의사대회에서 일본사람에게 들은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참석자들에게 질문한 것을 요약 소개하였다. “일본인은 사람은 3가지 중요점(three hearts)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첫째는 세계적으로 그들이 알려지는 것이고, 두번째는 친지와 가족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3가지 중요점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구멍에서 탈출하여 우리 스스로를 도와줄 수 있는 당신을 필요로 한다.”

미래학자 Lowell catlett 박사의 이야기의 요점을 참석자들에게 장래에 대하여 주어진 제목은 Green Cows(초원위의 소), Quaggas(19세기에 멸종된 얼룩말의 일종), Mummies(미라들) 이라는 것이었다. 즉 희망, 도태, 죽어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한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시 그 배경이 없이는 안된다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나 그 방법을 역으로 생각하여 보자. 목표를 설정하고 접근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어떨까? 이것 역시 의지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계 최초의 수의과대학이 1712년 불란서 리옹에서 생겼을 때의 배경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의사를 요구하고 있다. 기술면, 학문면, 인격적인 면, 변화의 대응에 적응하는 면 등등이 있을 것이다. 또 21세기 수의사 전망이라는 심포지움도 국내외 여러곳에서 개최되어 활발히 토론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감안하여 보면 현 대한민국의 가축위생시험소도 조직면, 기계기구 등 장비, 문헌, personal, professional values로 발전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자료에서는 조직면은 많은 검토가 되었고 또 활발하게 업무와 연계시켜 변화될 수 밖에 없는 점을 생각하여 논의로 하고 내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점들을 주로 제시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한국가축위생학회가 이런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한 회장님 이하 임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하시었다 라고 인사드린다.

업무의 변화

업무는 사회 경제적 여건과 국제적 흐름에 따라서 수의사의 입장이나 국가적 전문성의 정도에 불구하고 변화하고 있다. 그런 증거들은 현재 몇가지 예만 들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O157 ; H7, 영국의 BSE, 국내의 비위생적 우유, 탄저병, O157 ; H7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일련의 이런 사건들은 여기에 관여하는 수의사들이 현장과 밀접한 우리의 깊은 관여가 필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돌출된 것이 아니고 변화에 따라서 또는 기존의 사건들이 예상되는 문제들이었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축산식품의 공급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애국심을 호소하여도 건강에 해롭다는 점이 보도되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외국도 그렇게 역사를 걸어왔는데 라는 식의 것은 사후약방문격으로 스스로 위로하려는 의미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사정은 수의사들의 고도화된 소위 전문성을 사회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양측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관여하는 위생적 관리와 예방대책일 것이다. 이게 잘 된다면 질병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찾아보자. 이제는 지도라는 의미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방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의 가축보건위생소 전국 업적 발표 자료와 미국 수의사회가 개최한 1996년 심포지움 중 '21세기 수의사의 직업'이라는 내용을 소개하여 참고에 제공하고자 한다. 이 자료들에 나오는 몇가지 사례들은 우리가 실천하여야 할 것들이라 생각된다. 일본의 가축보건위생소 전국 업적 발표 자료는 이 글의 뒷부분에 따로 실었다.

미국수의사회가 개최한 1996 심포지움 중 '21세기 수의사의 직업'이라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pportunities for Veterinarians in the 21th Century

by Hial B, Finnegan, DVM. MS. MSPH.

최근에 당신의 건강 보험을 다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였다면 모든 것이 응용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알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사실상, 사용되어진 것과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건강에 관련된 새로운 형태(재구성 양식)이 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 이것은 50명 이상 사람마다 거의 모든 범을 만드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며 모든 의사들은 이를 확인시키고 있다. 전국 생산의 20%가 건강에 관련된 비용이라는 계산은 사실이다. 현 미국내에서 매 \$5에 \$1 지출이 평균이라는 의미는 사회적 혼란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건강 조심 실행에 관한 종합적 연구 The Interagency Institute for Federal Health Care Executives.'라는 제목의 2주 과정에서는 수의 분야 사람들은 미국에서 장래의 건강 조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어떻게 할까 걱정된다. 건강유지기구(The Health-Maintenance Organization(HMO))는 건강관리산업(Health care-Industry)으로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새로운 HMO는 달콤하거나 남거나 수익성 없는 것은 아니다. Kaiser-like HMO는 1950's에 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Humana, US Health, United Health Care와 같은 이들 새로운 HMO는 더 낮은 비용으로 건강 조짐을 하려는 공공적 요구의 반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wall street 전술로 이를 실행하고 있다.

건강관리는 현재 하나의 직업이다. 수익성 HMO의 수는 1991년 중간에 있었던 비수익성 HMO 수를 능가하고 있고 의외의 시장 침투를 즐기고 있다. 1990년에 수익성 HMO의 상업성은 단지 36%만 시장에 참여되었으나 현재는 55% 이상이고 현재 쉬지않고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영향은 의사가 침체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HMO는 환자의 큰 수를 증가시키고 다음 HMO가 돈을 받거나 안받거나 하는 장점에 의하여 환자의 지지를 받아 병원이 조절되고 있다. 모든 의사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 직면하고 있다. "왜 이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하는가? 최초 진료를 의사가 할 수 없어서 이러한가? 이 과정에서 왜 특별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관리를 보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된 의학적 전문성에 대한 변화의 바다이다.

그리고 모든 병원에 대한 중요한 충격이다. 특히 학문적인 교육이 되고 있는 병원에서이다.

우리가 미국 건강관리에서 보고 있는 것을 세계의 모든 곳에서 직업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재구성되고 있다. 기술학은 직업으로서 감소되고 있고 돈은 짝 묶여있다. 여분의 시대는 가벼웠다. 사람들은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냐고 질문하고 있다. 해외에서 널리 의사 소통되는 고용자들, 예를 들면 1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대신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전화선을 수리한다. 의사가 찾는 것은 이곳에 없다. 너무 늦었다. 2000년에 neurosurgery, plastic surgery, cardiology, anesthesiology, ophthalmology, orthopedics, 그리고 많은 것들과 같은 분야에서 의사가 전문화 되는 것을 125% 만큼 많이 추가될 것이다. 종합의사로 훈련받은 최초의 관리 provider는 장래의 충격이 되어질 것이다. 이 변화에 주는 강한 힘은 강력히 성장 중이다. HMO는 현재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큰 산업으로 통합되기 시작하고 있다. 1996년 4월초에 예를 들면 US Health Care는 큰 보험회사 Aetna에 통합되어 가장 크게 만들어졌고 미국에서 가장 힘있는 HMO가 되었다.

이들 새로운 HMO 통합 과제 구성은 점점 더 커지는 통합이 될 것이다. 이들 운영 비용은 더 많아질 것이다. 낮은 비용과 높은 수익을 지키는 방법은 질병 발생에서 사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다. 예방의학은 건강 관리 비용 감소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과학이 아닌 돈은 치료보다 질병예방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세계적 활동의 마지막이다. 여기에 수의 전문 분야가 극적인 기회로 놓이게 된다.

“What Lies Ahead for Veterinarians. 수의사가 우선이다.”

우리 수의사가 “White Water”의 이 계속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가를 확신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것이다. 수의사는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직업인 것이다. 그것은 수의학 분야가 왜 첫번째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에 있다. 만일 당신이 이를 의심한다면 임상가인 친한 친구 (20여년간 임상을 한 사람)가 나에게 말한 것을 들어보자. 그는 개 두마리가 그의 병원에 스스로 들어와서 사람에게 기대어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지막 시간에 소가 들어왔을 때 소의 입을 열고 치료를 하지 않겠는가? 사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수의사의 직업이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배웠던 공중위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외양간의 밖으로 수의사를 인도하는 시간이다.

다음 세기의 우리 직업은 우리 생각에서만 오로지 제한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잊은 공중위생의 개념이 그 후에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중위생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모든 것에서 요구된다. 의사는 수의사가 공중위생학문을 더 많이 배우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수의사가 더 많은 공중위생에 관한 논문을 학술 잡지에 쓰기를 원한다. 우리는 수의사가 의사와 더 많이 함께 일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런 기회는 끝이 없다. 당신의 병원에 의사를 초청하여 이 지역내 공중보건 문제점에 대하여 대화를 하여 보자. 상호관계를 정하고 새로운 HMO에 대해 정식참가계약을 하자. 그러면 그들은 의사-수의사 팀이 그들에게 돈을 모으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농촌에서 그러하다. 나는 그들이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을 보증한다. 기억하라. 여기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wall street인 것이고 병원의 시술자는 아닌 것이다.

공중위생에 관한 미국수의사회 자문위원회에서 우리는 “국가적인 가족 실현의 달. National Family Practice Month”과 “국가적인 공중보건 주간 National Public Health Week.”와 같은 그들의 “전국적 건강 홍보 캠페인 National Health Advertising Campaign”의 몇가지에 의사들과 협동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들 캠페인에서 그들과 협동에 의하여 우리는 수의사와 의사가 미국의 건강에서 일반적 관심있는 몫으로 공중위생을 가르칠 수 있다.

더구나 의사들과 동맹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미국의 증가되는 관심은 환경과 식품 공급에서 건강위험의 경고가 증가되었다. BSE의 근래 엄청난 일은 가장 좋은 예일 것이다. 환경학자, 야생동물 관리자 그리고 무제한적인 국내와 대양 어부로서 일하는 직업이 있다. 하여간 이들 변화와 직업은 아무 영향없이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은 문서화되거나 법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정부 장려금 지급보호(Government-subsidized housing)로 애완견을 지키기 위하여 늙은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화의 AVUMA의 지지가 좋은 예일 것이다.

만일 당신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다가오는 것을 알 것이다. 금년에 50세 되는 77백만의 baby boomer 뿐만 아니라 인간은 더 오래 살고 있다. 건강관리 법률화는 21세기내에 각 정치가들의 좋은 바쁜 일거리로 계속 되어지고 있다. 지방, 주 또는 국가적 수준 어느 것에서 그들의 강력한 건강 배후에서 수의사들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에게 처리하라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 당신은 거기서 처리해야만 되고 어떤 것이나 당신이 제의한 것은 판매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아직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그들을 가르쳐라. 공식적으로 운영하라. AVMA 총회 회원권을 응용하라. 세계의 한 수의사로서 정당성이 없다면 미국 대통령 과학자문기관이 될 수 없다. 또한 건강과 인간에 봉사하는 책임자일 수 없다. 만일 당신이 건강정책법률에 관심이 있다면 당신 생애에서 조기에 이 분야에 들어가라. 그리고 머물러라. 기회를 찾아라. 나를 믿으라. 이것은 강력한 훈련에서 오고 있다.

21세기는 수의사에게 큰 기회를 제외한다. 나는 지금 막 Roy Lilley가 지은 장래의 보장(Future Proofing)이라는 책을 완독하였다. 그 안에서 그는 직업의 새로운 세계는 돈과 단골들의 안전성에 너무나 의존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만일 고용인들이 조직에 추가되는 가치가 없으면 아주 가벼리는 것 같이 경쟁에서 쫓겨난다. 새로운 분야를 깨뜨리는 수의사들은 그들의 추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확실히 보장된다. 우리는 일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무엇이나 다가오고 있는 관계된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Lilley의 말인 그들이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전에 있다는 것과 같은 “See around corners. 구석구석을 살펴보자.” 라는 것을 꼭 배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전문성의 장래 보장 Future Proof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Shakespeare's Julius Caesar의 이야기는 “거기에는 늘 홍수가 생기고 운명이 인도되는 인간사의 파도가 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보를 합시다. 그리고 21세기안에서 우리는 전문인으로 항해를 하자”

Admission, profiles, pools and criteria

(1966, USA)

- 27 Vet. Colleges 중 22 대학 중앙 프로그램 따른다.
18,492명 지원 중 4,462명 합격, 여자 70% ; 남자 30%.
- range 60-83% women, 17-40% men,
19세 이하 2%, 20-25세 73.6%, 26-30세 14.6%, 30세 이상 10.3%.
- white 90%, Asia/Pacific 2.9%, African/American 1.2%
특이성은 Hispanic/Latinogroup이 1966년 4.7%로 상승-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2005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
- 지원상태는 직장인 23%, 졸업생 6%, 4년생 47%, 2-3학년 14%, 1학년 2% 미만
Public institution 27 Vet. Col. 90% 이상
Med. Sch. 60% 미만

반 성

현 가축위생시험소는 반성할 점이 무엇인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자. 기술, 인원, 전문성 그리고 기계기구의 미비점은 '내탓이요'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질 것인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가축위생시험소로서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위치에서 모범 답안은 무엇인가?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계요소에 개선을 건의한 적은 있는가? 아니면 끌려가면서 내탓이라기보다는 모두가 남의 탓이라는 생각은 아니었는가? 자기 성장을 위한 노력은 과연 얼마나 하였는가? 석.박사학위 취득자들의 노력은 곁에서 지켜보기에 어떠하였는가? 그들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는가?

중앙연구소와 같이 자리가 바뀌면 전문성을 다시 시작하는 풍토가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어떠한가? 일반 업무를 하면서 자기 전공(특성)을 살릴 수는 없었는가? 실험실의 팀이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었는가? 정말로 시간이 없었는가? 수의사로서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나의 생활과 전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전문성이 앞선 사람은 나보다 시간을 배로 가질 수 있었는가?

또한 우리가 처리하는 업무는 시행 후 정밀하게 정리평가하여 보았는가? 바로 그 자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이들 자료가 전국에서 모이면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가? 이들은 고유한 가축위생시험소 자료이면서 그 시대, 그 분야의 한국적 자료로 유일무이한 것은 아닐까? 그런 자료를 제 3자가 본다면 학교도, 연구소도 할 수 없는 자료라는 생각은 하여 본 적이 있는가? 야외 자료는 survey로서 학문적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가? 남이 발전하고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 적은 있는가? 내가 한 일을 남에게 잘 전달한 적은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위의 이러한 의문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혹시 내가 주인이 되어 해결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하였는가? 이는 다른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전문성이 살아나는 훌륭한 일을 하였을 때 나는 같은 위치에서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는가? 혹시 나와 비교하여 별 것 아니다 라는 평가를 한 적은 없는가? 아니면 힘을 합쳐서 더욱 발전적으로 가려는 노력은 하여 보았는가?

자! 여러분. 이런것들은 앞에서 소개한 “See around corner.”로 Future proof가 되게 하여야 한다면 Shakespeare’s Julius Carsar의 이야기처럼 “거기에는 홍수가 생기고 운명이 인도되는 인간사의 파도가 있다. 우리보다 홍수가 먼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발전합시다. 그리고 21세기 안에서 우리의 전문성으로 항해를 하자”라는 말을 상기하고 싶다.

장 점

1. 전국 50여개 실험실에 수의사가 600명 근무하며 방방곡곡 어느 곳 하나도 소외되지 않게 조직이 되어 있다. 어느 조직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2.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3. 학회라는 구심점으로 우리 스스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 일선의 모든 현장을 가장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다. 중앙의 전문가와 이야기하여 보면 광범위하게 우리보다 잘 알고 있지 못한 점도 있다.
5.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은 자기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고 조직은 팀을 이루어 특성있는 실험실을 가질 수 있다. 예를들어 기생충, 세균, 병리, 유방염 등등이다.
6. 연구사업의 적극 참여=연구사업은 실험실도 중요하지만 현장이 더 중요하다. 만일 현장과 실험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다면, 또 대학과 협조가 조화로울 수 있다면 어떠할까? 우리들이 하는 일 전부가 논문으로 정리되어 좋은 국가적 학문적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연구자금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7. 학회를 중심으로 정리가 된다면 제3자들이 못하는 전국적 자료가 만들어지면서 인정받는 수의학기관으로 될 것이다.
8. 소위 Blind Test를 하여 실험실의 성적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보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9. 정밀기계기구의 구입 추천이 이루어지면 국가적, 실험실별로 커다란 장점이 되며 같은 기계기구의 사용시 장단점이 비교되어 느슨해지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10. 가축위생시험소가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가축위생사고 사례집이 발간된다면 역사적으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현장 사정이므로 학생, 관계회사, 우리 상호간에 큰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되고 반복적인 처리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제3자들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는 좋은 증거 자료가 될 것이다.
11. 도축검사를 하는 사람과 조직으로서 정밀검사가 된다면 출하농장의 질병과 변화를 파악하여 정보의 feedback으로 농장의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이고 공중위생에 기여될 것이다. 또한 도축과정에서 발견되는 비정상적 상태를 한 실험실에서 연간 5건만이라도 사진과 식물 표본을

확보, 정리한다면 국가적인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의 예는 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장점을 찾아서 승화시켜 학계, 국가, 우리자신에게 유익한 자료를 쓰는 습관이 정착되어야 한다. 아마 이런 일들이 실행화된다면 후원자나 협조 요청자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고 하면 부정하시겠습니까?

중점 추진 과제로 위상 제고

모든 업무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분석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중점적인 과제를 선정, 차근차근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은 목표 달성을 수치적으로 몇건에 몇건하였으나 몇 %한 것이 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현실적이고 학문적인 면을 분석평가하여 자료로 작성 정리하는 것이다. 각 지역것과 전국적인 것이 보고되면 우리나라 것이 되며 역시 유일무이한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을 중심으로 하는 가축위생시험소 수의사는 위상이 정립되어 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여 본다.

1. 통일과제

- 1) 병리표본과 천연색 사진 수집 정리 발간
- 2) 정밀 도축검사로 정보의 농가 환원
- 3) 위생사고 사례집 발간
- 4) 문제점 농가의 위생관리지도 및 사례 정리 발표
- 5) 결핵과 부루셀라의 발생과 원인 분석 및 균 분리
- 6) 유질과 유방염의 체계적 분석과 응용
- 7) 간질의 중간 평가
- 8) 목장위생검사와 실태조사 분석 평가
- 9) 가축혈청 사업
- 10) 기타 필요한 것

2. 기계기구의 통일과 추천의 활성화

3. Blind Test의 정립으로 실험자료 국제화

4. 기술의 평준화 추진

5. 연구사업에 적극 참여 위상 제고

6. 문헌의 확보

7. 전국 가축위생시험소가 발간한 책과 논문의 집대성

8. 각 시험소가 발표한 자료, 전문지에 투고한 내용 집대성

9. 각 가축위생시험소의 특성의 발굴 표창으로 위생제고와 시범화

10.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관 대우제 추진

11. 연구상 수상자의 근무평정 반영, 법으로 추진

12. 가축진료 상황 자료 파악으로 정보 응용

13. 가축위생시험소 업무의 자료 보존 방법
14. 동물약품 판매 정보의 응용
15. 동물용 약제의 내성 동향 파악-자료 응용
16. 가축유래균의 내성 동향 파악-자료 응용
17. 국제적 협력
18. 만성 전염성 질병의 청정화
19. Total 지도 개념 도입
20. 가축위생정보지 발간-농가
21. 임상 생화학 검사
22. 모든 자료의 발간 기록 유지
23. 양축가가 가축위생시험소에 원하는 내용 조사
24. 민간 가축위생지도원, (농약, 사료, 축협), 지도소, 기계기구판매소, 의료기 제작 회사와 가축위생시험소의 정기 검토 모색
25. 대규모 농장의 위생상태 파악

결 론

수의사의 주요 임무는 1. 공중위생을 통한 사람 건강 관리와 2. 가축위생관리의 2개 주요부분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잘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로서 전문지식이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국민이 존경하는 수의사로서 조직으로서 우뚝 선다면 우리가 바라는 제1의 목표가 아닐까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의사로서 바람직한 상은 세계가 알아주고 가족과 친지가 인정해주고 자신이 확신있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을때와 앞으로 정치인들이 사람의 건강에 큰 관심을 두는 국민과 마주할 때 자문자로서 수의사를 찾는다는 전망을 미국에서 하고 있다. 왜냐하면 HMO의 주요한 팀의 한분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증거를 들어본다면 건강식품이 대량 소비되고 유해물질이 있는 식품은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충분한 것 같다. 즉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Prevention Medicine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축산식품은 경제 향상에 따라서 늘어가고 있다. 반면 안전한 축산물 공급의 중요성이 질병 예방에 중요하다. 인수공통전염병을 비롯한 유해잔류물질의 문제는 누가 막는가? 에 이르면 수의사가 할 일이라고 답이 되어 질 것이다. 가축에 위생적인 안전이 확보되면 치료나 소독의 시행은 적어지고 생산성도 높아진다. 이런일들이 바로 전국의 최일선 담당자인 가축위생시험소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가축위생시험소 소장실 현황판 제목을 ‘철저한 가축방역과 시민보건향상’ 이라고 개소시부터 쓰여 있습니다. 수의사는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다룬다는 미국의 심포지움 내용과 합치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사고를 전환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면 국민의 존경받는 가축위생시험소 직원이 된다는 확신을 가집시다.

참 고 문 헌

1. JAVMA : Symposium proceedings; Managing your Economic Future in Veterinary Medicine. JAVMA. Vol. 209. No 2, July 15, 1996 : 194-243.
2. JAVMA ; The internation exchange, an economic perspective on the symposium “Managing your Economic Future Veterinary Medicine.”, JAVMA. Vol. 209, No.4, August 15, 1996 : 744-746.
3. IDF, Residues of antimicrobial drugs and other inhibitors in milk. IDF, 1995, 단행본.
4. Martin E, Hugh-Jones, William T, HubDert, Narry V, Hagstad. Zoonoses (Recognition, Control and Prevention). Iowa State Uni, Press/Ames, 1995, 단행본.
5. 대한수의사회. '94 전국수의사대회 프로시딩. 대한수의사회 1994.
6. 대한수의사회. 한국의 수의업무-급변하는 세계속에 약진하는 수의 업무-1994.
7. 경북대학교수의과대학 수의과학 연구소, 2000년대 수의학의 발전방향. 1996. 발표자료집
8.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중점관리기술(HACCP). 심포지움 자료집, 1996.